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7일 목요일 음 12월 25일 (2물)

기상정보

호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5℃, 낮 최고기온은 6-10℃로 전망된다. 낮은 구름대에 의해 갑자기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30%
30%	성 산	30%
30%	고 산	30%
3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호림

4/6℃

모레

호림

3/7℃

월드뉴스

위조 ‘백신 패스’ 판매한 일당 적발

유럽서 한 장에 135만원 팔려

유럽에서 사용하는 코로나19 백신 패스와 음성 증명서를 위조해 판매해 온 일당이 스페인 경찰에 들미를 붙잡혔다.

스페인 경찰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 패스를 보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위조해 1600여명에게 넘긴 혐의로 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경찰은 수도 마드리드에서 6명, 바르셀로나에서 1명을 붙잡았으며, 이들을 조만간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공중 보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백신 패스의 가격을 200유로(약 27만원) 또는 1000유로(약 135만원)로 고객의 수입에 따라 다



프랑스에서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모습.

르게 판매했다. PCR 음성 증명서는 50유로(약 6만7000원)를 청구했다.

이들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술집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탈 때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프랑스에도 위조 백신 패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27개 EU 회원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검사 결과가 음성일 때 발급하는 QR 코드 형태의 증명서를 사용

연합뉴스

목요일론



주현정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지난 주말에 애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밭의 무들이 수확 후 밭에 방치돼 있는 것을 봤다. 힘들게 재배한 농작물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해 안타까웠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제주에는 과잉 생산된 월동채소의 산지 폐기로 분주하다. 당근은 작년의 34%, 양배추는 53%, 무는 20%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고 한다.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생산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농민이 농사를 잘 지어도 매해 기온, 강수량, 자연재해, 수입량, 타 농민들의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월동채소의 산지 폐기는 불가피한가?

고려해 생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2015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가격 변동이 큰 채소에 대해 시장격리와 출하조절 등의 수급안정 대책과 농민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주고 있다. 제주도와 농협도 자율감축, 분산출하, 소비촉진 확대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산지 폐기 문제는 거의 매해 반복되는 이야기이다. 이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본다. 첫째, 제주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 데이터 구축이다. 제주 농산물 재배 면적이거나 생산량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고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농협, 읍·면·동의 자체자료, 농산

물품질관리원의 마을 단위 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제 재배면적과 경작여부를 확인하고 드론으로 현장조사를 해 정확한 농업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머신러닝을 통한 제주 월동채소의 수급예측시스템 구축이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이용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 패턴을 찾는 것으로 의사결정이나 예측에 도움을 준다. 농업과 기후데이터를 결합해 머신러닝을 한다면 미래 수요량과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에게 생산 조절 요청을 파종 시기부터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통합적 관리이다. 농산물 역시 농업수입을 위한 판로가 확보돼야 하고, 생산량에 따라 도내 소비량, 수출량, 가공량, 수매·비축량의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농산물 생산이 유통으로 연계

되지 않는다면 해마다 변동되는 농산물 가격의 파해는 농업인 개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에 격리되는 산지 폐기 목적의 비상품 농산물은 맛과 신선도가 보장된다면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등에 급식용이나 꾸러미 형태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미국에는 대형마트 계산대 옆에 큰 드럼통이 있다. 이 안에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하면 푸드뱅크에서 수거해 간다. 단, 시장 격리된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와 상호 신뢰가 필요할 것이다. 2022년 연초이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2022년 연말에는 산지 폐기라는 말없이 농민들은 제값 받고 소비자도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이 잘 이뤄졌다는 뉴스를 접했으면 한다.

열린마당

코로나 시대 아이들 행복의 조건, ‘성장의 힘’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됩니다



강동우
전 제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어려움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오미크론도 확산하면서 3월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오랜 시간 반복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감내하느라 지쳐있을 것이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는 학생들에게 닥친 ‘현재적 문제’이다. 아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털어내고 행복을 채울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의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 방역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학습 방역, 마음 방역, 건강 방역, 사회성 방역 등 다양한 체계로 실천돼야 한다. 미래를 주도하

는 인재로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토대를 갖춰야 한다. 그 위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결속감을 키우고,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꿈을 적극적으로 꾸고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품을 제공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지지받을 때 존재의 이유를 확인한다. 존재감이 있어야 아이들은 협력·소통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으로 자라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은 아이들의 내면과 사고 과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할 때, 성장의 길이와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성장할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장의 힘’이다.



김현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됐고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걸쳐 27일(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망자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법이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만든 처벌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단 16개의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다.

그러나 16개의 조항에 담겨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법 시행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된다. 서귀포시로 보면 전체 사업장 중 0.7%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동안 사업장이 과연 안전하지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부분은 있는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주사위가 던져졌다. 그러나 ‘처벌’이 법의 단어에 치중돼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안전은 곧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연관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의원

● 제주소방서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